JJIAO's OCTOBER REPORT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3. HANOI ADVENTURE

4. PERSONAL ESSAY

1. About Jjiao Jjiao

2011.09.13 Cong Cafe

CONTENTS

1. About JJIAO

JJIAO
10월
아띠 소개

2. ACTIVITIES

3. HanoiAdventure

4. ESSAY

한중교
베트남 이름: Huu Nhan

가을 타는 남자

밤만 되면 감성 분위기
잡는 치와와
울적한 마음을 달래 줄
음악 필수!

이성연
베트남 이름: Thien Thanh

영어 마스코트

유연한 발음 굴림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킴
찌아오의 원어민

CONTENTS

1. About JJIAO

JJIAO
10월
아띠소개

2. ACTIVITIES

3. HanoiAdventure

4. ESSAY

허재복
베트남 이름:: Huu Phuc

앞서가는 현지인

베트남 사람들도 인정한
진정한 현지인
우리보다 일을 앞서서 끝냄

이사라
베트남 이름: Doan Trang

팜므파탈

감추려 해도 전혀 감춰지지
않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2. October Activities

2011.10. 08 Cong Cafe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ATTI CLUB

봉클•번클

봉사클럽활동

베트남어수업

한베음식문화축제

3. HanoiAdven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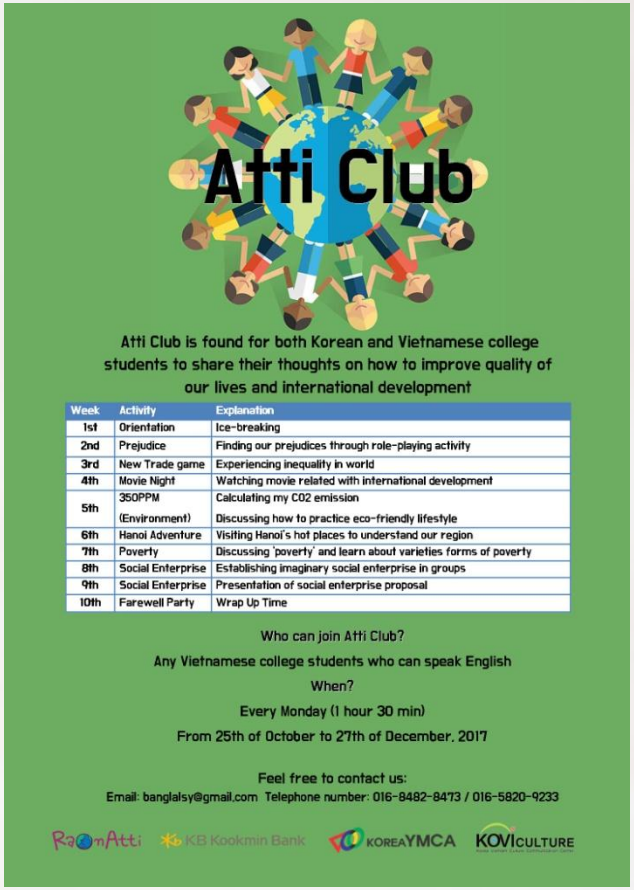
4. ESSAY

ATTI CLUB

ATTI CLUB이란,

한국 대학생들과 베트남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교류하고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는 동아리입니다.

실제 사용했던 포스터 →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ATTI CLUB

봉클•번클

봉사클럽활동

베트남어수업

한베음식문화축제

3. HanoiAdventure

4. ESSAY

ATTI CLUB

Week	Activity	Explanation
1st	Orientation	Ice-breaking
2nd	Prejudice	Finding our prejudices through role-playing activity
3rd	New Trade game	Experiencing inequality in world
4th	Movie Night	Watching movie related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5th	350PPM (Environment)	Calculating my CO2 emission Discussing how to practice eco-friendly lifestyle
6th	Hanoi Adventure	Visiting Hanoi's hot places to understand our region
7th	Poverty	Discussing 'poverty' and learn about varieties forms of poverty
8th	Social Enterprise	Establishing imaginary social enterprise in groups
9th	Social Enterprise	Presentation of social enterprise proposal
10th	Farewell Party	Wrap Up Time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ATTI CLUB

봉클•번클

봉사클럽활동

베트남어수업

한베음식문화축제

3. HanoiAdventure

4. ESSAY

1. 응웬짜이 대학교

활동 시작일: 2017.10.25

학생 수: 16

언어: 한국어 → 베트남어

특징: 깨발랄

2. 국민경제대

활동 시작일: 2017.11.02

학생 수: 16

언어: 영어

특징: 차~분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ATTI CLUB

봉클•번클

봉사클럽활동

베트남어수업

한베음식문화축제

3. HanoiAdventure

4. ESSAY

FEEDBACK

#언어 소통의 딜레마

통역이 없으면 언어소통이 불가능하고, 통역이 있으면 관계형성이 잘 안된다.

#약속시간

약속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혼란.

#캠페인

약속이 안 지켜져서 또 취소되었다. 이젠 제발 그냥 빨리 하고 싶다.

#모두다같이

팀원 한 사람만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보다는 다같이 준비하자!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ATTI CLUB

봉클•번클

봉사클럽활동

베트남어수업

한베음식문화축제

3. HanoiAdventure

4. ESSAY

봉사클럽 • 번역클럽

이번 달에도 여김 없이 매 주 화요일과 목요일 5시 30분부터 봉사클럽과 번역클럽을 참여했습니다.

봉사클럽 – 이사라, 허재복
번역클럽 – 한중교, 이성연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ATTI CLUB

봉클•번클

봉사클럽활동

베트남어수업

한베음식문화축제

3. HanoiAdventure

4. ESSAY

봉클 봉사활동

1. 일시 – 10월 7일, 10월 21일(총 2회)

2. 대상 – 10월 7일(초등 3,4,5학년), 10월 21일(초등 1,2,3학년)

3. 구성 – 교육조, 한국문화조, 게임조

4. 담당 – 사리(한국문화조), 재복(교육조)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ATTI CLUB

봉클•번클

봉사클럽활동

베트남어수업

한베음식문화축제

3. HanoiAdventure

4. ESSAY

첫 번째 봉클 봉사활동(10월 7일)

주제

교육조 – 성교육
연극을 통해 스킨십에 대한 대처법과 몸의 소중함, 확실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줌

한국문화조
한복 입어보기, 한국어배우기를 진행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ATTI CLUB

봉클•번클

봉사클럽활동

베트남어수업

한베음식문화축제

3. HanoiAdventure

4. ESSAY

두 번째 봉클 봉사활동(10월 21일)

주제

교육조 – 꿈
자신의 꿈 그리기

한국문화조
한복 색칠하기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ATTI CLUB
봉클•번클
봉사클럽활동
베트남어수업
한베음식문화축제

3. HanoiAdventure

4. ESSAY

FEEDBACK

#1차 봉사활동

수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산만했고, 방해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려 노력은 했지만, 잘 안 되었다.

#2차 봉사활동

1차 때보다 좀 더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세가지 수업이 있는데 아이들은 한 수업만 듣고서는 끝난 줄 알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었다.
활동을 제대로 공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다.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ATTI CLUB

봉클•번클

봉사클럽활동

베트남어수업

한베음식문화축제

3. HanoiAdventure

4. ESSAY

베트남어 수업

타오 선생님과
함께한 2달의
베트남어 수업
(feat.스승의 은혜)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ATTI CLUB

봉클•번클

봉사클럽활동

베트남어수업

한베음식문화축제

3. HanoiAdventure

4. ESSAY

한베음식문화축제

1. 일시 : 10월 27일 ~ 29일

2. 장소 : 미딩 종합경기장

3. 담당 : 중교(투호놀이), 성연(제기차기)
사리(윷놀이), 재복(딱지치기)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ATTI CLUB

봉클•번클

봉사클럽활동

베트남어수업

한베음식문화축제

3. HanoiAdventure

4. ESSAY

한베음식문화축제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ATTI CLUB

봉클•번클

봉사클럽활동

베트남어수업

한베음식문화축제

3. HanoiAdventure

4. ESSAY

한베음식문화축제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켜라!
(Feat.준수간사님)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ATTI CLUB

봉클•번클

봉사클럽활동

베트남어수업

한베음식문화축제

3. HanoiAdventure

4. ESSAY

한베음식문화축제

한베음식문화축제
자원봉사자분들과

3. Culture Adventure
2019.10. 21 Pho Bia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3. Culture Advent

Women's day

호떠이

포비아

4. ESSAY

Women's day

베트남에서는 여성의 날을 두 번 기념합니다.

UN이 지정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베트남에서의 10월 20일 여성의 날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3. Culture Advent

Women's day

호떠이

포비아

4. ESSAY

하노이 탐방

여기는 호떠이 (서호)

호떠이는 고백하러 많이 온다던데...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3. Culture Advent

Women's day

호떠이

포비아

4. ESSAY

하노이 탐방

감성적인 남자, 중교씨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3. Culture Advent

Women's day

호떠이

포비아

4. ESSAY

하노이 탐방

호떠이에서는 호떡을 먹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새우튀김을 먹어야 돼

여기는 맥주거리, 포비아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3. Culture Advent

Women's day

호떠이

포비아

4. ESSAY

하노이 탐방

이상한 사람 2명;;;
뭐하고 있을까요?

CONTENTS

1. About JJIAO

2. ACTIVITIES

3. Culture Advent

Women's day

호떠이

포비아

4. ESSAY

하노이 탐방

찌아오팀의 4인 가지각색의 척척척!!!
(ex-멋진척, 귀여운척, 이쁜척)

4. Personal Essay
2019.10. 19 KOVI Center

중교's 개인에세이

항상 개인에세이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고, 시작할 것 같다. "벌써 10월이야? 벌써 11월이야?" 그렇다. 벌써 11월이란다. 양간사님과 안산ymca 간사님들과 9월쯤에 연락을 해서 11월 중간점검을 얘기 했을 때만 해도 11월이 오긴 올까 생각했는데 11월이란다. 10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이 되어 저번 달 보고서의 에세이를 다시 읽어 보았다. 역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말이 실감이 났다. 9월 보고서에 썼던 다짐들이나 생각들을 다시 그저 그렇게 잊고 살았던 것 같다. 9월 보고서를 쓸 때도 그랬지만 항상 보고서를 쓸 때는 한 달에 대해 후회하고, 다시 다짐하고 보고서를 다 쓰면 다시 잊고의 반복인 것 같다. 이러한 뫼비우스의 띠를 끊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다가도 이번 달 보고서를 다 쓰면 잊고 살다 중간 점검 때 방문하시는 간사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각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된다. 그리고 항상 팀원들과 나눔을 하면서 팀원들에게 배우는 것도 많고 잠깐이지만 나눔 때만이라도 나의 고민과 생각들을 다시 꺼낼 수 있게 되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2달이 되어가니 한국이 그립기도 하다. 한국에 있을 때는 취업 걱정에 한국이 꼴도 보기도 싫었는데 결국 나는 한국 사람인가 보다. 어머니가 해주신 찌개가 그립고, 친구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 동기 형 한 명과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소한 전화 한 통에서 나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형에게 요새 빨리 한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하자 계속 듣고 있던 형이 나에게 너무 부럽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도 베트남에 있는 5개월 동안은 한국에서의 힘든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너가 선택해서 간 봉사활동을 하고 올 수 있지 않냐고 하는 것이다.
전화를 끊고 생각이 들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다. 나는 잊고 있었다. 누군가에겐 나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쓰려고 소중한 5개월을 허비하는 사람일 수 도 있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대학생에겐 나는 해외봉사라는 사치를 부리는 대학생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라온아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에겐 내가 있는 이 곳이 그들에겐 간절하게 가고 싶었던 곳이라는 것을.
그래서 적어도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남은 3개월을 활동해야 할 것 같다.
중간 정도 쓰고 보니 저번 달에 사라랑 성연이한테 에세이를 왜 그렇게 진지충처럼 썼냐고 뭐라고 했는데 이번 달은 내가 진지충처럼 쓴 것 같다..... 한 소리 듣겠네.... 하...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려 한다. 이번 달은 2개의 대학교에서 아띠클럽을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기획을 하다 보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었지만 막상 아띠클럽을 시작하다 보니 학생들이 맨 처음부터 그저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환대해주고 좋은 반응을 해줘서 오히려 지금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하고 나면 기가 빨린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부디 12월 말까지 이어지는 아띠클럽이 아무 탈 없이 마무리되어서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아띠클럽을 하면서 사람간의 소통에서는 언어보다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 서로 말이 완벽하게 통하지 않아도 그들의 표정과 말투, 톤을 들어보면 눈치껏 이러한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11월의 활동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11월 보고서는 더욱 알차게 채워질 것 같다는 좋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11월 보고서에서는 내가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팀원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많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10월 개인보고서_이성연

준비기간이었던 9월은 지나가고 드디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0월을 맞이했다. 그런데 현지사정 때문에 10월 중순까지는 9월과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다. 마음이 조금 초조했다. 직접 대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미팅을 하니, 활동할 수 있는 대학교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저번 기수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친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알려주었다. 인생에 흔치 않은 '평가 받지 않는 기간' 이라고 말하며, 잘하려고 하기보다 팀원들과 즐기라고 말해주었다. 항상 평가 받는 것에 익숙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5개월도 나를 포함한 누군가가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말은 나의 마음에 있던 짐을 가볍게 해주었다.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도 문득문득 이 말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팀원들과 같이 즐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10월 25일, 드디어 '아띠클럽'이 시작되었다. 아띠클럽이 예상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이 모임들은 나에게 소중하게 느껴진다. 사실 두 대학 중 하나인

응웬짜이대학에서의 활동은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언어 소통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고, 계획한대로 일정이 흘러가지 않았다. 어제는 아띠클럽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오기로 한 10명 중 2명만 왔다. 조금 당황했지만! 아직 저녁을 먹지 않은 두 친구를 위해 같이 치킨을 먹으러 가자는 대안이 나왔다. 이 시간을 통해 약속을 지킨 두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정말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표면적으로는 실패한 하루였지만, 간사님과 우리 팀원들에게는 5개월 활동 중 기억에 많이 남을 만한 좋은 하루였다. '이게 내가 고민했던 잘하기보다 즐기는 마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온아띠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간사님이나 동반자들이 해준 말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다. 그분들이 한 말들이나 조언들이 딱딱 들어 맞기 때문이다.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말하셨던 부분들 거의 다 갈등으로 일어나거나 또는 적어도 나눔 때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아띠와 이메일을 주고 받을 때 우스갯소리로 간사님들은 돗자리 피셔도 되겠다는 말을 했다. 이제 베트남에 온 지 두 달이 조금 넘어갔는데, 이제서야 생각나고 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된 의견은 스마트폰을 안 가져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이다. 처음에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다른 아띠에게 들었을 때는, 말 그대로 멘탈 붕괴가 왔다. 그만큼 나는 스마트폰에 대한 의지도가 높았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스마트폰을 팔고 나서도 며칠을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찾고, 내 것과 같은 기종의 핸드폰을

자꾸 가져갔다. 그러다 보니 하루 일과가 그다지 여유롭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오고 나서 빈 시간들이 많이 생겼다. 초반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심심함이라 어쩔 줄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일기도 자주 쓰게 되었고 책도 벌써 6권째 책을 읽는 중이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책을 좋아했던 내가, 한 달에 한 권도, 심할 때는 한 학기에 한 권도 읽지 않았었는데... 가끔 팀원들이 이미지 관리하지 말라고 장난치지만, 정말로 내가 원래 좋아했던 일을 다시 찾은 것 같고 조금 거창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삶의 질이 좋아진 것 같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못 가져간다는 것을 듣고 힘들어하는 나에게 한 동반자가 해준 말이 생각났다. 자신도 처음에는 힘들 것 같았지만, 스마트폰이 없어서 좋았다는 말을 했었다. 사실 이 말을 들을 때는 곱게 들리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다음 기수 친구들에게 나도 아마 똑 같은 말을 하게 될 것 같다.

10월 개인에세이를 쓰면서 이번 달에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개인에세이에는 자세히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외에도 빵빵 터지게 해주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시켜주는 팀원들, 우릴 챙겨 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센터의 간사님들, 기다려지는 메일을 써주는 아띠들, 같이 놀러다니는 베트남 베프 타오 그리고 어떤 말이든 잘 들어주는 가족 등, 베트남에서의 일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득 기억난다. 어쩌다 보니 축사 같이 되 버렸지만, 어쩔 수 없다 ☺

#이번에도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10월 달 이야기 #이번엔 #감성적 #PPT에_맞춰 #손글씨_글씨체로 #내용은 #감성적? #감성적과는_거리가_먼

#벌써_2달-라온아띠(feat.재복) #10월의_이야기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원래 시간이 이렇게 빠르던가? 지금은 내가 베트남에서 깨고 자고 하는 시간이 벌써 반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한다. 첫 달은 적응기간이라 빨리 갔다고 생각했는데 10월은 이상하게 더 빨리 간 느낌이다. 또한 이번 달에는 많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 한베음식문화축제 때 10명 정도 알게 되었고 아띠클럽을 시작하고 대학 2곳에서 진행을 하면서 약 40명 정도를 더 알게 된 것을 보면 두 활동을 합치면 50명 정도를 알게 된 달이다. 또 이번에는 봉사활동 준비도 하고 봉사활동도 가고 아띠클럽준비와 아띠클럽을 하게 된 달이라 바빴던 달인 것 같고 또 적응도 되어서 빨리 간 것 같다. 베트남에 있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인 파인애플과 망고, 귤 그리고 처음 먹어보는 과일 등등이 싸고 맛있다는 점이 좋았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싸고 맛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을 때 싸고 맛난 과일을 많이 먹자는 생각이 들어서 10월에는 과일을 많이 먹기도 했다. 또한, 조금 아쉬우면서 신기했던 것은 아띠클럽, 한베음식문화축제 봉사자들을 보며 나는 거의 계속 라온아띠 기간 동안 다 막내였는데 이 두 곳에서는 내가 막내가 아니었고 중간(?)의 나이였다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라온아띠 활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제 밑에 해시태그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봉사클럽 #2회의_봉사활동 #2회의 강의 #언어의_중요성(feat.봉사클럽봉사활동!) #첫번째로_ 첫번째 봉사활동

처음 봉사활동을 갔을 때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었고 성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다. 처음에 성교육을 선택한 이유는(다음 달 내용 스포주의) 처음 봉사클럽에서 빈곤에 대해 물어 봤을 때 나온 것 중 성교육의 빈곤, 아기몸 보호 부족(성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우리 조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 베트남에서는 성교육을 학교에서 잘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고 다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교육으로 정해졌다. 연극을 보여 줄 때 조금 더 말을 덜 할 수 있는 역할인 아이 역할을 맡았었고 모든 언어는 베트남어로 해야 되었었다. 하지만 변명이지만 베트남어가 미숙한 것도 있었고 베트남어라 잘 외워지지가 않았다. 또한, 성조가 잘못되어서 잘 못 알아 듣는 일도 있어서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나는 베트남어로 하는데 아이들에게는 자막이 필요했다. 또한, 내가 좀 더 열심히 더 많이 연습했고 했더라면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성교육이 되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또한, 내가 베트남어를 잘 못하다 보니 나의 부분이 끝나면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어 수업에 잘 참여도 못하고 지루하기도 했었다. 또한, 이때도 아이들이 무엇을 물어봐도 내가 베트남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대화를 많이 못 나눠본 게 후회가 되기도 한다. 후회도 있지만 이 활동을 통해 뿌듯했던 점이 있다면 베트남어로 연극을 하며 나는 조금이나마 베트남어를 연습할 수 있었고 그 문장의 흐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내가 거기 나온 베트남어는 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의미 있고 뿌듯하였다.

#봉사클럽 #2회의_봉사활동 #2회의 강의 #언어의_중요성(feat.봉사클럽봉사활동!) #두번째는_ 두번째 봉사활동

2번째 봉사활동은 똑같은 학교에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저학년이다 보니 내용을 선정하고 또한 활동을 정하는 데 있어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재미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선택하고 의미도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회의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었다. 그래서 정해진 주제는 '꿈'이였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에 대해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다. 이번에 봉사활동에서는 아이들에게 좀 더 말을 걸 수 있고 직업에 관한 것은 베트남어를 배워서 아이들이랑 쉽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이번에는 시간이 잘 갔던 것 같다. 놀라웠던 점은 나의 어릴 적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여자아이 중 많이 나온 직업은 선생님, 간호사이고 남자아이들은 좀 다양하였는데 군인, 공안(경찰), 어떤 반에서는 축구선수도 많이 나왔다. 하지만 저학년이라 꿈을 그리라고 해도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거나 꿈이 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대처를 안 세운 것은 우리의 조금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이 든다.

#봉사클럽 #2회의_봉사활동 #2회의 강의 #언어의_중요성(feat.봉사클럽봉사활동!) #두번의_강의

봉사클럽에서 강의를 들은 것은 두 번 다 생각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해주셨다. 생각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는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구나' 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주시는 강의였고 두 번째는 마음에 관한 것이었는데 나의 9월에 다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있으니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이번에도_등장한_베트남어 #아마 #매달 #넣을_것 #같은 #기분

지겹지만 이번에도 베트남어다!! 이번 달에는 베트남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었다!! 이제 택시를 타고 직진이요, 좌회전이요, 우회전이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Grab을 탈 때 전화가 오면 그래도 조금은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되게 되었다. 이 정도 된 것에 너무 기뻤다. 하지만 아직 성조가 완전하지 못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성조를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또한, 베트남어를 실전으로 배우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엄청 쓸모 없게 가르쳐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내가 베트남어로 조금의 문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영어로는 잘 못한다는 것을 더 알게 되었고 진짜 신기한 것은 가끔은 영어가 편할 때도 있고 가끔은 베트남어가 편할 때가 있다는 것에 놀라웠다. 앞으로 더 베트남어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베트남어 수업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독학이닷!!!! 열심히 해봐야겠다!!

#10월의_하노이탐방 #호떠이에서는_호떡을_먹어야지 #사실_호떠이에서는_새우튀김이지 #포비아는_공포증? #NO! #맥주거리 #Phố_Bia(포비아) # Phố는 길! #아이_캔_스피크

10월에는 아이 캔 스피크를 보고 또 호떠이(서호)를 갔다 오고 맥주 거리를 갔다 오고 형과 나는 지오스톰을 보고 왔었다. 아이 캔 스피크가 베트남영화관에 개봉한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한국영화인데도 베트남에 개봉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아이 캔 스피크를 보면서는 중간중간 울컥하는 부분이 많았다. 두 번째로 팀원들끼리 갔던 곳은 호떠이(서호)와 맥주 거리였다. 하노이에는 호수가 많고 저번 달에 갔던 곳은 호안끼엠이라는 호수고 이번 달에는 호떠이라는 호수였다. 호떠이에 가면 맛있는 곳도 많았다. 호떠이에 가면 새우튀김을 먹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새우튀김을 먹을 갔었고 새우튀김을 먹고 튀김 쌀국수를 먹으러 갔었는데 튀김 쌀국수가 나오지 않고 다른 게 나와서 조금 당황은 했지만 맛있었다. 그 후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먹고 맥주 거리로 갔다. 맥주 거리는 호안끼엠 쪽에 있던 곳이고 그냥 그런 시간들이 재미있었고 또 여유를 즐긴 것 같았다. 아직 내가 못 가본 곳 중에 바딘 광장과 호찌민묘소, 호찌민박물관 등등 많은 곳이 있는데 11월에는 한 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1월에는 더 많은 하노이를 볼 것이 10월의 다짐이다!!

#베트남에도_아띠클럽이?!?!?! #언어의_중요성2(feat.아띠클럽)

이번 달부터 우리는 처음 아띠클럽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띠클럽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것은 언어에 중요성이다. 특히 응웬짜이대학교를 나갈 때에는 통역이 꼭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딜레마도 있다. 통역이 붙으면 그만큼 서로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줄어들어 더 친밀감을 느끼기는 힘든 것 같다. 최대한 나도 베트남어를 열심히 해서 조금의 소통은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빈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11월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이지만 나중에 까먹을까 봐 적어둔다.. 또 경제대에서는 영어로 소통하지만 나는 영어가 잘 안되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하다. 하지만 나는 아띠클럽을 하면서 제일 많이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 같다. 또한, 나이대가 내가 거의 중간의 나이거나 좀 나이가 있는 편에 속해 놀랐었다. 어딜가나 라온아띠 활동 중에도 이때까지는 다 막내였지만 여기서는 막내가 아니어서 놀랐었던 것 같다. 10월까지는 아직 오티밖에 진행을 하지 않아서 자세한 이야기는 11월 보고서에서 하겠다!!

#라온아띠_활동은? #라온아띠_활동이란_무엇인가 #이게_제일_최근 #순간_흠칫_하게한#규홍간사님의_말속의_말

오랜만에 규홍간사님이 전화를 하셨다. 그때 규홍간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나를 흠칫하게 만들었던 말이 있었다. 내가 했던 말은

"이제 아띠클럽을 시작했어요!! 이제 드디어 라온아띠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었다. 그때 규홍간사님께서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그럼 이때까지 라온아띠 활동을 안했어?"라고 말을 하셨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말을 하셨었다.) 그래서 순간 나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이

'내가 너무 우리가 오기 전 하기로 한 활동만 라온아띠의 활동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고민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다 라온아띠활동이라는 것을!! 다시는 못 올 라온아띠 활동이라는 것을!! 앞으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10월의 다짐)

#9월에_했던_고민 #어떻게_되었을까?

9월에 했던 고민은 현재진행형들이 많다. 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것 말고도 라온아띠에 대한 고민,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 등등 아직까지 고민들이 안 풀린 것도 있고 지금까지 답을 찾는 중이다!!

#한베음식문화축제 #짧은기간에_많이친해진 #딱지치기팀 #딱지치기팀_짱짱!! #마지막_명대사

한베음식문화축제에서는 나는 딱지치기를 하는 조에 들어가 있었고 한국어를 잘하는 봉사자분들과 진행을 하였다. 나는 한베음식문화축제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느낀 것이 있다. 베트남에서는 런닝맨을 많이 보고 또한 이광수는 키가 정말 컸고 이광수는 아시아프린스가 맞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앞에 말한 것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쓴 말이고 정말로 이제 들어가자면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왔었다. 또한, 한복부스도 있었는데 한복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진행하면서 우리 팀의 봉사자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도와주고 해주셔서 고마웠고 또한 우리 팀끼리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친해진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주말에도 활동은 했지만 즐거웠고 고마운 날들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대사가 떠올랐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너와 함께한 모든 날들이 눈부셨다'

딱지치기팀 짱짱!!!!

#9월의_다짐 #얼마나_달성을? #10#궁금하지요?! #350PPM #사진을_찍자

위에서 말했던 9월의 다짐들이다. 350PPM, 사진을 찍자는 것은 많이 못 지켜졌다. 350PPM으로 버스에 도전해보자는 아직까지 도전을 못해본 사항이고 사진을 찍자는 카메라는 들고 다니게 되었지만 사진을 많이 찍지는 않았다. 여기서 위에서 말한 강의 내용이 생각 났던 것이 나는 그런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지키지 못했고 작심삼일에 불과했다. 그렇게 10월이 지나갔다. 또한 다시 다짐하게 된다!! 10월에는 꼭 한 번 지켜보자고!!

#그래서 #보고서에_나온 #10월의_다짐은?!?!

#1일_1사진 #버스도전!! #350PPM #생각을_전환하기!! #조심스레_1일1과일도_추가해_봅니다

#이제_끝 #10월의_개인에세이 #11월에_만나요

#아띠소개 #역시_사쿠라 #실상은 #호떠이_낚시꾼

#마지막에 #결론을 #찾은 #보고서

10월 개인보고서_이사라

10월은 지난 달 보다 더 순식간에 지나갔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서인지 시간이 빨리 지나간 느낌이다. 활동 준비하고, 회의하고 진행을 해야 돼서 부담감은 있었지만, 기대감이 더 높았다. 이제 생각해보면 9월에 활동 기획하고, 회의했던 시간들도 활동을 한 건데 교육, 봉사활동만 라온아띠 활동 시작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다. 찌아오팀이 처음으로 진행한 활동은 “Atti club” 이다. 10월 보고서에 소개하였지만, 한국 대학생들과 베트남 대학생들이 문화교류하고 지구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에 대해 고민해보는 동아리이다. 우리가 “Atti club” 동아리의 목적에 맞게 주차별로 활동하는 시간들을 기획하고 열심히 준비했기에 앞으로 할 활동들이 더 기대되었다. 두 학교에서 “Atti club” 이 진행되는데 같은 대학생이지만 학교 분위기가 완전 달랐다. 매 주 수요일마다 하는 응웬짜이 대학교의 학생들은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 반면,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국민경제대학교의 학생들은 차분하지만, 동아리 분위기가 잡혀져 있어서 활동진행이 수월하게 흘려간다.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제일 큰 문제점이 언어소통이었다.

응웬짜이 대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운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고, 영어로 소통한다 해도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절반 정도 있었기 때문에 소통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응웬짜이대에서 동아리 할 때 항상 봉사클럽, 번역클럽 대학생들 중 한 명과 현지 코디네이터 간사님이 도와주셨다. 국민경제 대학생들은 대부분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을 영어로 한다. 난 영어가 서툴지만, 영어를 통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거에 감사했다. 아마 국민 경제대학교에서까지 의사소통이 힘들었다면 “Atti club”을 즐기면서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기획한 활동 주제로 한국과 베트남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생각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매 주 화요일마다 봉사클럽에서 강의를 듣고 조별로 나눔을 한다. 나눔을 할 때, 베트남 학생들은 강의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 서로 나눌 수 있어서 유익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10월 7일과 21일에 봉사클럽 친구들과 초등학교에 가서 2차례 봉사활동을 했다. 3팀이 나눠져서 활동진행을 했는데, 내가 활동했던 팀은 한국 문화조이다. 학생들에게 한국 음식, 한복, 한국어를 알려주는 활동이어서 서로가 즐겁게 임할 수 있었다. 1차 봉사활동 하러 갔을 때에는 3,4,5학년이었고, 2차 때에는 1,2,3학년이었다. 역시 2차 때 갔던 아이들이 어리고 귀여웠고, 산만하지 않아서 활동을 진행할 때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반면, 1차 때에는 아이들이 앳된 얼굴보단 조금 성숙한 얼굴이었고, 장난기가 가득해서 집중시키기 어려웠다.

‘아이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통은 꼭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사람을 대할 때 눈을 보고 얘기하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언어가 안되어도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짐작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과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한달 동안 배웠던 베트남어를 응용하면서 가족관계나, 학교생활, 오늘 어땠는지 등등 물어볼 수 있었다. 앞으로 이 곳에서 한 차례 더 봉사활동이 남았다. 아이들이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건지 물어 봤을 때, 그들에게 함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수 없어서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다.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이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조심스러웠다. 한 번 더 봉사하러 가게 될 때, 만약 일정이 겹치지 않는다면 꼭 다시 갈 것이다.

베트남 문화 중에 신기했던 것은 여성의 날을 한국의 성년의 날처럼 의미를 갖고 기념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여성의 날을 가볍게 넘기는데 베트남에서는 성년의 날처럼 꽃과 선물을 준다. 그리고 UN, 베트남이 따로 지정한 여성의 날이 있다는 것에 한 번 더 놀랬다. 그만큼 베트남에선 여성을 존중해주고, 높게 생각한다는 것에 놀랬다. 간사님에게 베트남에서의 여성의 날은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베트남 전쟁 때에도 남자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자도 같이 나가서 싸웠고, 일, 살림, 그리고 육아도 대부분 여자가 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존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런 것이 문화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럼 남성의 날은 왜 없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한국에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가 없어서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 한국에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가 없어서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같이 축하해주었다.

평일에 쉬는 날 없이 센터, 집 혹은 외근, 집이 반복되어서 지쳤었다. 그나마 주말에 쉴 수 있고, 집, 센터를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주말만 기다렸었다. 평일에 지쳐있다가 주말이 되면 재충전하는 시간들이 이젠 익숙하다.... 조원들도 많이 지쳐있고, 다들 서로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12월에 가게 될 비자여행을 다들 벌써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 그 기대가 헛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달에는 서로간의 큰 갈등은 없었지만, 작은 오해들은 조금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 대화법'으로 사용하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일이 크게 번지지 않고 작은 오해에서 끝낼 수 있었다. 날이 갈수록 나눔을 건너뛰는 날이 많아져서 대책을 세웠다. 전에는 따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서로 시간이 여유로울 때 했었는데, 이젠 시간이 정해져서 '지금 나눔 할까?' 물어보지 않아도 10시가 되면 자연스레 거실로 모인다. (진작 그렇게 할 걸ㅎ)

한 달이 지날수록 시간은 더 빨리 느껴진다. 그래서 이번 11월달이 더 걱정된다. 눈 깜짝할 사이에 11월이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남은 시간들이 촉박하게 느껴진다. 3주 후면 중간평가 하고, 또 11월 보고서를 준비해야 돼서 정신 없겠지만, 남은 시간들 알뜰하게 보내야겠다.

THANK YOU